

#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 Expenditure on Education for Children's Human Capital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文淑才

충남대학교 소비자·가정관리학과

교수 金純美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金星禧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Prof. : Sook Jae, Moon

Consumer Science and Family Resource Management, Chungnam National Univ.

Prof. : Soon Mi, Kim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Lecturer. : Sung Hee, Kim

### 〈목 차〉

I. 문제의 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factors which affect the expenditure on educations for children's human capital and to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to make a policy for education. Data are obtained from 2484 married couples with children on the pre-school or o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If the eldest child was in pre-school or public school, the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was higher than that of public education. While in the beyond junior high school, the expenditure on public education was much higher.

2) Life-cycle, the number of children, region, earned income, non-earned income, real assets, Engel's coefficient were significant impact on the expenditure

of education.

## 1. 문제의 제기

산업의 발달에 따라 가정의 생산적 기능이 사회로 이전되면서 자녀의 노동력이 갖던 생산적 가치가 변화되었다. 가정의 대를 잇고 노동력을 제공하던 자녀의 가정에 대한 의무가 점차 사라진 반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가 증가되어 자녀를 사회와 부모가 원하는 미래의 사회인, 즉 양질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하게 되었다. 이 때, 자녀의 질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의 저장(stock)으로서, 성인이 되었을 때 노동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다.

자녀의 인적자본에는 능력, 지식, 기술, 경험 및 건강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적자본의 축적이 많을수록 자녀가 발휘할 수 있는 노동력의 생산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잠재적인 미래 소득과 사회적 성취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Schultz, 1961 ; Becker, 1981). 또한 자녀의 사회적 성공은 가족의 지위생산(family status production)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Papanek, 1979), 가정의 중요한 목표 중에는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이 포함될 수 있다.

인적자본은 그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미래의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해서는 투자가 요구된다. 부모는 자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녀의 인적자본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투자를 계획하게 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의 투자에는 일반적인 정규교육, 특수교육 및 훈련,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및 서비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한 이주 등의 여러 형태가 있다(박창영, 1991). 그러나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는 학교교육이나 자녀의 정서적 발달을 돕는 특기교육과 같은 교육에 대한 투자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지식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이것은 미래의 생산성 증가 및 생활의 질 향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Ehrenberg & Smith(1994)는 인적자본의 투자 형태 중 교

육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교육투자와 생애소득과의 정적인 관계를 밝혔으며, Becker(1981)와 Schultz(1961) 등도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부모들은 자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의 사회적 지위상승은 곧 가족의 사회적 지위상승을 의미하며, 학벌위주의 사회에서 자녀의 지위상승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녀의 성공적 교육이 가정의 중요 과업이 되었다.

그러나 자녀의 인적자본 향상 및 생산성 증가를 위한 교육투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투자는 부모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게 되었다. 가정에서의 교육비 지출은 자녀의 지식, 능력, 자질 등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인적자본에 대한 부모의 바램과 기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1995년 현재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교육비는 월 10만원 선을 넘어서고 있으며(통계청, 1996), 이중 특히 사교육비의 높은 증가율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녀의 인적자본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 교육학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Marshall(1956)이 '모든 자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은 인간에게 투입된 자본'이라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 Shultz(1961)의 연구를 계기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미국의 경제학자 및 가정학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적자본의 측면에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분석(Blau, 1992; Joesch, 1994)하거나,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가정의 지출비(Espenshade, 1984; Lino, 1990, 1994), 자녀교육년수와 소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Schultz, 1974)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도 교육학 분야에서 교육을 통한 미래의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는 잠재적 능력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 등과 같은 교육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박창영, 1991).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 교육비에 대한 연구는 자녀의 인성, 지능, 적응 등의 개인적 발달과 성장에 초점을 두거나 실태 파악의 측면에서 자녀 교육비의 지출을 조사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을 뿐(김 신일, 1993 ; 김행, 1994 ; 조성숙, 1994), 인적자본으로서의 자녀를 초점에 둔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자녀의 인적자본을 위한 투자는 가족의 상황이나 가정의 재정상태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자원의 양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정에서 자녀의 인적자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 즉 투자기회나 투자능력은 자녀의 인적자본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Ehrenberg & Smith, 1994 ; 박일규, 1995), 부모의 특성, 자녀수, 자녀의 연령 등 가족관련변수 또한 교육투자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김성희, 199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인적자본을 위한 교육비 지출 정도와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교육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자녀의 교육비의 지출정도를 파악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비의 지출을 비교한 후, 교육비 지출의 결정 요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인적자본

일반적으로 자본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고, 자본을 창출, 유지, 증식시키기 위한 투자가 요구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최근에 이르기까지 기계나 생산설비와 같은 물적 자본만을 지칭하여 왔다. 그러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볼 때 자본은 노동, 토지 등과 같은 물

적 자본 뿐 아니라 미래 소득의 흐름을 제공하는 원천으로써 지식, 기술, 경험 등과 같은 인적자본도 포함될 수 있다(Erikson, 1991 ; Jones & Peck, 1993 ; 박창영, 1991). 즉 물적자본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이나 직장내 훈련, 학령전 교육, 노동경험 등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능은 물론 정보, 건강, 그리고 다른 개인적 특성 등도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인간의 체내에 내재한다는 의미에서 물적자본과 달리 인적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Becker, 1975 ; Ehrenberg & Smith, 1994 ; Ghez & Becker, 1975 ; Jones & Peck, 1993 ; Mincer, 1970 ; Schultz, 1961 ; 박일규, 1995).

이러한 인적자본은 Petty(1676)에 의해 최초로 제기되었으며, 그후 Smith(1776), Walras 등에 의해 개념이 발전하여, 토지, 개인재능, 내구재 등이 포함된 인적자본의 가치방정식이 제시되기도 하였다(김재진, 김남현, 1986, p. 42에서 재인용). 인적자본 "혁명"은 1960년대 이후 Schultz, Mincer, Friedman, Rosen 등의 시카고 경제학파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Schultz(1961)에 의하면 유용한 기술이나 지식은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것으로서 자본의 한 형태이며, 서구사회는 인적자본이 물적자본보다 급속하게 증가해 왔다고 하였다. 한 나라의 국민 총생산의 증가가 일반적으로 토지, 노동, 자본 등의 투입으로 인한 증가보다 큰 것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밖에도 Mincer(1962), Becker(1981)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라 소득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적자본의 중요성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였다. 즉 노동자의 차이는 노동자가 획득한 인적자본의 양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노동의 질적 차이에서 기인하며 그에 따라 노동의 대가인 소득이나 사회적 성취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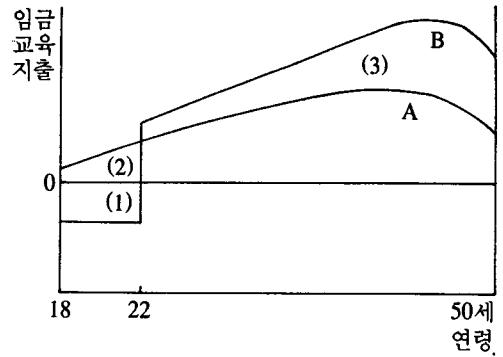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적자본은 노동력의 질적 요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자녀의 질, 즉 자녀의 인적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은 자녀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미래에 노동시장에서 얻게 되는 소득이나 성취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

자녀의 미래 성취를 위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인적자본 투자형태로는 자녀의 학교교육 투자를 들 수 있다(Schultz, 1961; Becker, 1981). 학교교육은 개인에게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며,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통해 개인의 노동능력이 향상된다. 일정 기간 동안 학교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수업료, 교재비, 보충교육비(과외비, 예·체능교습비 등) 등의 제반 비용뿐만 아니라 교통비와 같은 기본적인 실질 비용이 수반된다. 또한 학교교육을 받는 기간동안 취업하여 벌 수 있는 임금만큼의 기회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한 후에 투자된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된다면 교육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게 된다(Bryant, 1991; 兼清弘之, 1989; 박일규, 1995; 배무기, 1993).

〈그림 1〉은 개인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생애 동안 얻을 수 있는 소득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녀의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Ehrenberg & Smith, 1994). X축은 연령, Y축은 18세이후의 임금 및 교육에 지출한 총액이며, A곡선은 고등학교 졸업 후 18세에 취직한 사람의 연령별 생애소득의 변화를, B곡선은 대학졸업후 22세에 취직한 사람의 교육투자비용과 연령별 생애소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A는 취업후 직장내의 작업경험을 통해 임금이 상승하게 되지만 60세에 퇴직하기까지 학교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이며, B는 4년간의 대학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기간 동안 임금을 획득할 수 없으며, 그림 (1)과 같이 수업료나 교재대와 같은 직접적인 교육비를 지출하게 된다. 그러나 B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하였다면, 대학교육기간에 획득할 수 있는 임금은 (2)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B의 교육투자비용은 (1)과 (2)가 된다.

반면에 (3)은 B의 생애소득과 A의 생애소득간의 차이이며,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에 의해 얻게 되는 순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B곡선의 기울기가 A 곡선의 기울기보다 가파른 것을 통해 대학졸업자의 생애소득이 고등학교 졸업자의 생애소득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는



- 주: A :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사람의 근로소득  
 B :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사람의 근로소득  
 (1) : 대학 교육비(수업료, 책값 등)  
 (2) : 대학 재학중의 기회비용  
 (3) : 대학 교육에 따른 순수익

출처: Ehrenberg & Smith(1994), p. 283.

〈그림 1〉 교육투자와 생애소득

자녀의 미래의 성취를 위해 매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Schultz(1961)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적 가치를 현재의 소득 향상보다 미래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고, 교육에 의한 인적자본의 투자 효과는 개인이나 현재 세대를 벗어나 사회나 미래 세대에까지 연결되는 장기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의 교육투자는 개인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 3. 교육투자에 대한 관련변수의 고찰

### 1) 가족관련변수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부연령, 생활주기, 주부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 자녀수 등이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주부연령이 증가할수록, 첫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생활주기가 증가할수록 자녀의 교육비 지출은 증가하였으며, 가계지출비에 대한 교육비의 비율 역시 주부연령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Gaag, 1982 ; 문숙재, 김성희, 1995 ; 최승애, 1985). 자녀의 교육비 지출은 주부의 교육수준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어,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중 부교재비, 학용품비, 과외수업비, 특기지도비, 단체활동비 등의 지출이 증가하였고, 자녀의 대학진학율이 상승하였으며(Connolly & Gottschalk, 1995), 남편직업이 전문관리직일 때 자녀의 일인당 교육비의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spenshade, 1984 ; 이종호, 1990). 자녀수는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교육비 지출은 증가하나 자녀 한명을 위한 교육비 지출은 감소하였다(Becker, 1993 ; Gronau, 1991 ; Lino, 1990, 1992).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수에 주부연령, 주부의 교육수준, 남편직업, 부모동거여부, 주부취업여부, 자녀수, 첫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생활주기, 주택소유형태, 거주지역 등을 포함시켰다. 여기에서 거주지역을 포함시킨 것은 자녀의 교육여건과 사교육 교육시장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 2) 재정관련변수

선행연구에 의하면 근로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 등과 같은 재정관련변수들이 자녀의 인적자본을 위한 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Espenshade, 1973, 1984 ; Gronau, 1973 ; Lino, 1990, 1992, 1994 ; Turchi, 1975 ; 김성희, 1996).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높아지므로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Schwenk, 1986 ; 브라이언트 저, 문숙재, 김순미, 소연경, 홍성

희 공역, 1993). Lino(1990, 199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필수품의 경우 근로소득에 따른 지출비의 차이가 적으나, 자녀교육비의 경우는 저소득에 비해 고소득의 경우 지출비가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저축액 및 주식보유율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주택가격인 실물자산은 자녀의 인적자본을 위한 투자기회로써,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을수록, 그리고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투자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금전투자량은 증가하였다(De Tray, 1973 ; 박일규, 1995).

재정관련변수는 투자능력과 투자기회를 나타내주는 변수이므로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보편적인 투자형태인 교육비 지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관련변수에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 총부채액, 소득원수, 남편의 소득비, 소득에 대한 만족여부, 생활수준의 지표인 앵겔계수, 그리고 1년후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주관적 경제적 인식 등을 포함시켰다. 선행연구(Lino, 1990, 1992 ; De Tray, 1973 ; 문숙재, 김성희, 1995 ; 김성희, 1996)에 의하면 재정관련변수가 자녀의 교육비 지출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변수를 정교화시켜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 Ⅲ.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 1. 연구모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의 인적자본투자 중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형태인 교육투자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녀의 교육비를 교육비의 성격에 따라 공교육비<sup>1)</sup>, 사교육비<sup>2)</sup>, 그리고 공교육비와 사교육

- 1) 공교육비 : 유치원이나 학교 등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지출, 학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의 개념으로 수업료, 기성회비, 졸업앨범대, 수학여행비, 사은회비 등과 연필, 볼펜, 만년필, 노트, 앨범 등의 종이 제품, 그림물감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제반 경비.
- 2) 사교육비 : 과외비와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것으로, 과외비는 학생의 학과성적의 향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한 지출비로서 진학을 위한 학원비, 가정 교사비, 그룹 과외비, 이에 포함되는 교재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특별활동비에는 학생의 학과성적의 향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자녀의 정서함양이나 취미활동을 위하여 지출

비를 합한 총교육비로 구분하고 각각의 교육비 지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교육비(공교육비, 사교육비, 총교육비) 지출 = f(가족관련 변수, 재정관련변수)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변수에는 주부연령, 주부교육수준, 부모동거여부, 남편직업, 주부취업여부, 자녀수, 첫자녀연령을 기준으로 한 생활주기, 주택소유형태, 거주지역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재정관련변수에는 가계의 연간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 총부채액, 소득원수, 남편의 소득비, 소득에 대한 만족여부, 엔젤계수, 주관적 경제인식 변수를 포함하였다.

## 2. 연구방법

### 1)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93년도 한국가구패널조사(KHPS)이다. KHPS는 가계 및 가족구성원의 사회·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조사로서, 다단계 층화 확률표본(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 방식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추출한 일반가구 4,547<sup>3)</sup> 가구로 구성된 자료이다. 본 분석에 사용된 표본수는 미혼의 자녀가 학생이거나 취학전인 2,484가계이고, 설문지는 가계 및 가족구성원의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 2)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경향을 조사하기 위해 빈도, 평균, 비율 등을 산출하였다. 또한 가족관련변수 및 재정관련변수가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미

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Tobit분석을 수행하였다. Tobit 분석을 사용한 것은 자녀교육비의 각 영역이 0값에 편중<sup>4)</sup>되기 때문이며, 분석에 앞서 연구모델에 사용된 변수들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기초자료의 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주부의 연령은 평균 34.07세였으며, 평균 교육수준은 11.11년이었다.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10.1%였으며, 남편직업은 봉급생활자 56.28%, 자영업 31.44%, 비정규직·미취업 7.53%였다. 주부의 취업여부는 비취업이 88.8%, 취업이 11.2%였으며, 첫자녀연령은 취학전의 경우가 43.8%, 초등학교는 27.98%, 중·고등학교가 20.13%, 대학교는 8.09%로 나타났다. 가계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1,665만5천원, 연평균 비근로소득은 689만원이었으며, 금융자산 879만원, 실물자산 4,991만원이었다. 남편의 소득비는 0.78로 총가계소득이 주로 남편에 의해 획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계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엔젤계수는 0.44였는데, 이것은 다소 위안할 수 있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계가 느끼는 주관적 경제인식은 3.06으로 1년 후 자신의 경제생활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한편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지출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첫자녀가 취학전이거나 초등학교인 경우 사교육비의 지출이 공교육비의 지출보다 현저히 많았다. 이와 같이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은 것은 학과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외비의 지출보다는 자녀의 예·체능 교

되는 비용으로서 유아, 미술교육 등에 사용되는 학원비, 태권도 등 신체적 활동에 대한 학원비, 속셈 학원 등 학과공부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으나 자녀의 교육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 목표표본은 4,500가구였고, 이 목표표본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 추출한 표본의 수는 예상응답률(55%)을 고려하여 결정된 8,236가구였다. 대도시 지역의 응답률과 기타도시 지역의 응답률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6대도시 지역은 각 통/리당 8가구를 추출하였고, 기타도시 지역은 각 통/리당 7가구를 추출하였다.

4) 교육비의 0값 편포 비율은 공교육비 48.3%, 사교육비 34.2%였으며, 총교육비는 23.8%였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 의 및 측 정 방 법
<b>종 속 변수</b> 공교육비 사교육비 총교육비	학교교육비 과외비, 예·체능교습비, 기타 교육비 공교육비 + 사교육비
<b>가족관련 변수</b> 주부연령 주부교육수준 부모동거여부 남편직업  주부취업여부 자녀수 생활주기(첫자녀 연령)  주택소유형태 거주지역	교육년수 1 = 부모 동거      0 = 부모 비동거 봉급생활자      1 = 해당      0 = 비해당 자영업자      1 = 해당      0 = 비해당 농림수산업자      1 = 해당      0 = 비해당 비정규직 및 미취업자      1 = 해당      0 = 비해당 1 = 취업      0 = 비취업 주원활동이 학생이거나 취학전인 미혼자녀의 수 취학전      1 = 해당      0 = 비해당 초등학교      1 = 해당      0 = 비해당 중·고등학교      1 = 해당      0 = 비해당 대학교 이상      1 = 해당      0 = 비해당 1 = 자가      0 = 기타(월세, 전세) 1 = 도시      0 = 기타
<b>재정관련 변수</b>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 총부채액 소득원수 남편의 소득비 소득에 대한 만족여부 엔젤계수 주관적 경제인식	급여 + 상여금 + 자영소득 + 부업소득(만원/년) 자산소득 + 이전소득 + 기타소득(만원/년) 예금 + 주식 + 채권 + 보험 + 계(만원) 현재 주택시세(만원) 금융기관 부채 + 사채(만원) 소득이 있는 가족원수 남편소득 / 총가계소득 1 = 만족(총가계소득>적정소득) 0 = 불만족(총가계소득<=적정소득) 연간 식비 / 연간가계지출 1년후의 경제생활 전망*

a : 1. 매우 나빠질 것이다. 3. 오히려 비슷할 것이다. 5. 매우 좋아질 것이다.

육 때문이며<sup>5)</sup>, 자녀의 예·체능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조성숙(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첫자녀가 중·고등학교인 경우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지출이 모두 많았

5) 사교육비중 과외비와 예체능비를 생활주기에 따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만원)

구 분	취 학 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 학 교
과 외 비	1.19	39.14	94.27	73.49
예·체능교습비	39.64	85.80	47.81	29.61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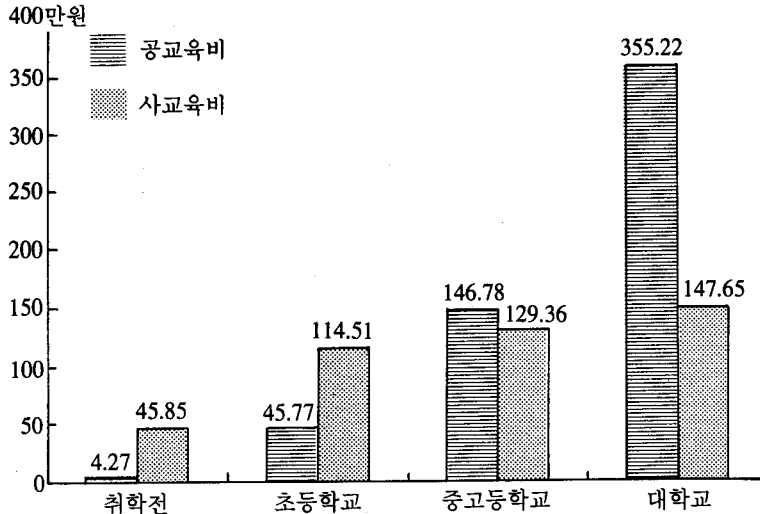
		(N = 2,484)	
범 주 형 변 수		빈 도	백 분 율
부모동거여부	동 거	252	10. 1
	비동거	2232	89. 9
남편직업	봉급생활자	1398	56.28
	자영업	781	31.44
	농림수산업	118	4.75
	비정규직·미취업	187	7.53
주부취업여부	취업	277	11. 2
	비취업	2207	88. 8
생활주기	취학전	1088	43. 8
	초등학교	695	27.98
	중·고등학교	500	20.13
주택형태	대학교	201	8.09
	아파트(연립, 다세대)	1240	49.92
거주지역	단독주택	1244	50.08
	도시	1425	57. 4
소득만족여부	중·소도시	1059	42. 6
	만 족	1832	73. 8
	불만족	652	26. 2
연 속 변 수		평 균	표 준 편 차
주부연령(세)		34.07	6.71
주부교육수준(년)		11.11	2.57
자녀수(명)		1.86	0.70
근로소득(만원/년)		1,665.52	909.07
비근로소득(만원/년)		688.79	846.60
금융자산(만원)		879.37	1251.29
실물자산(만원)		4,990.72	6221.27
총부채액(만원)		950.18	1440.55
소득원수(명)		1.37	0.55
남편의 소득비		0.78	0.22
엔젤계수		0.44	0.14
주관적 경제인식(1-5점)		3.06	0.76

는데, 이것은 자녀의 대학진학을 위한 지나친 교육 열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공교육비뿐만 아니라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으며 가계 총지출의 상당비율을 차지한다는 김행(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자녀가 대학교인 경우에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인 경우에 비해 공교육비의 지출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대학교 등록금이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교육비의 지출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순으로 증가하며, 그 증가율은 중·

고등학교에 비해 2배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의 지출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거의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자녀의 교육비 지출은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비의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특히 공교육비의 지출은 자녀가 대학교일 때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초등학교만을 의무교육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지역에 따라 의무교육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그림 1〉 생애주기별 교육비 지출

된다. 대학교의 공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것은 대학교육에 대한 장학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며, 국립대학교에 비해 사립대학교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자녀의 대학교육에 대한 학비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대상자 가계의 재정상태 및 교육비 지출의 분포는 〈표 3〉과 같다. 조사대상자 가계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1,666만원이었으며, 이 중 하위 25%집단은 1,150만원, 상위 25%집단은 2,000만원으로 나타나 상위 25%집단이 하위 25%집단의 2배정도가 되었다. 이에 비해 비근로소득은 평균 689만원으로 근로소득에 비해 낮았지만 상위 25%집단은 913만원 이상의 비근로소득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은 평균 879만4천원이었으며, 하위 25%집단은 210만원, 상위 25%집단은 1,064만원을 은행예금, 채권, 주식 등의 형태로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분포는 집단간의 금융자산보유액의 차이가 큰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실물자산은 평균 4,990만7천원으로, 하위 25%집단은 1,600만원, 50%는 3,000만원, 상위 25%집단은 6,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자산에 비해 실물자산의 보유액이 5배이상 많았지만 총부채의 경

우는 하위 25%집단이 111만원, 상위 25%집단이 1,179만원의 부채가 있었으며, 평균 부채액은 950만 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채가 있는 사람들간의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교육비의 지출 중 공교육비의 지출은 140만원으로, 하위 25%집단은 36만원, 50%는 72만원, 다른 상위 25%집단은 180만원을 학교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사교육비중 과외비의 지출은 평균 159만원이었으며, 하위 25%집단은 72만원, 상위 25%집단은 216만원으로 나타났다. 예·체능교습비는 과외비에 비해 지출의 정도가 적어 평균 114만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이 중 하위 25%집단은 60만원, 50%는 96만원, 상위 25%집단은 12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총합인 총교육비는 평균 228만원으로, 하위 25%집단은 96만원, 50%는 156만원, 그리고 상위 25%집단은 300만원을 자녀의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교육비 지출 중 과외비의 지출이 가장 많은 것은 대학진학을 우선하는 우리나라 교육풍토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 생각할 수 있으며, 김행(1994), 조성숙(199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 3〉 가계 재정상태 및 교육비 지출 분포

(단위: 만원)

변 수	빈 도	25%	50%	75%	평 균	표준편차
근로소득(년)	2,426	1,150	1,462	2 000	1,665.52	909.07
비근로소득(년)	1,012	180	500	913	688.79	846.60
금융자산	2,126	210	524	1,064	879.37	1,251.29
실물자산	2,044	1,600	3,000	6,000	4,990.72	6,221.27
총부채	1,366	111	500	1,179	950.18	1,440.55
공교육비(년)	1,293	36	72	180	140.18	161.20
사교육비(년)	1,596	72	120	180	148.26	117.85
과외비(년)	570	72	120	216	158.61	125.01
예·채능교습비(년)	1,161	60	96	120	114.22	78.49
기 타(년)	175	24	60	96	77.76	87.29
총교육비(년)	1,887	96	156	300	228.46	215.17

## 2. 연구문제의 분석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교육비를 공교육비, 사교육비, 그리고 총교육비로 구분한 후 각각의 교육비 지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Tobit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공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연령, 자녀수, 생활주기, 주택소유형태, 금융자산, 엔겔계수였다. 주부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첫자녀의 연령이 중·고등학교이거나 대학교인 경우, 주택소유형태가 전세이거나 월세인 경우, 금융자산이 적을수록, 그리고 엔겔계수가 낮을수록 공교육비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연령이 많을수록, 생애주기가 중·고등학교이거나, 대학교인 경우 공교육비의 지출이 많은 것은 초등학교인 경우 의무교육의 실시로 가정에서 부담하는 공교육비의 부담율이 낮으나, 중·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의 부재로 인해 가정이 자녀의 모든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특히 이 시기에는 상급학교의 진학이 매우 중요한 과업이므로 학교에서 제공되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등이 많기 때문이다. 부모들의 학교교육비의 부담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되어, 대학생이 되면 절정에 이르게 된다. 주택소유가 전세이거나 월세인 경우, 그리고 금융자산이 낮을수

록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의 지출이 높은 것은 자녀에게 부모의 가난이나 낮은 사회적 지위를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교육 투자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엔겔계수가 낮다는 것은 생활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이는 가정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공교육비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즉 생활에 여유가 있는 가정일수록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해 학교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Espenshade (1984), Lino(1994), 박일규(1995), 통계청(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과외비와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된 사교육비의 경우, 주부연령, 남편직업, 자녀수, 생활주기, 주택소유형태, 거주지역,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 엔겔계수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주부연령이 높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농림수산업자인 경우에 비해 자영업인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생활주기가, 취학전이거나 대학교인 경우에 비해 중·고등학교일 때, 중·고등학교인 경우에 비해 초등학교일 때, 주택소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거주지역이 도시인 경우,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금융자산, 그리고 실물자산이 많을수록, 엔겔계수가 낮을수록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자녀가 취학전이거나 대학생인 경우에 비해 중·

〈표 4〉 교육비 지출에 대한 Tobit 분석 결과

(N = 1710)

독립변수	종속변수		공 교육비		사 교육비		총 교육비	
	Estimate	Standard Error	Estimate	Standard Error	Estimate	Standard Error	Estimate	Standard Error
<b>가족관련 변수</b>								
주부연령	2.50*	1.08	3.51***	1.00	6.02***	1.19		
주부의 교육수준	1.45	1.78	2.76	1.67	4.07*	1.98		
부모동거여부(동거)	1.54	12.65	-2.74	11.72	-13.07	13.96		
남편직업(자영업자)								
봉급생활자	-1.09	9.09	-4.42	8.05	-0.23	9.71		
농림수산업자	-2.93	20.31	-80.73***	21.66	-40.72	24.41		
비정규직·미취업자	-12.87	16.78	22.15	15.74	23.53	18.73		
주부취업여부(취업)	10.20	12.74	-7.30	11.77	-12.54	14.08		
자녀수	30.52***	6.02	45.78***	5.67	65.18***	6.71		
생활주기(중·고등학교)								
취학전	-315.31***	19.18	-59.97***	14.67	-179.62***	17.50		
초등학교	-86.01***	11.35	30.40**	11.42	-56.22***	13.61		
대학교	144.79***	15.68	-127.85***	16.45	142.60***	19.02		
주택소유형태(자가)	-20.71*	8.40	18.93**	7.32	10.79	8.82		
거주지역(도시)	5.61	8.48	39.03***	7.30	36.96***	8.78		
<b>재정관련 변수</b>								
근로소득	-0.00	0.01	0.01**	0.00	0.02***	0.01		
비근로소득	0.01	0.01	0.02***	0.01	0.01*	0.01		
금융자산	-0.01*	0.00	0.01*	0.00	0.00	0.00		
실물자산	0.00	0.00	0.00***	0.00	0.00***	0.00		
총부채액	0.00	0.00	0.00	0.00	0.01	0.00		
소득원수	11.35	8.32	-8.13	7.49	-10.42	8.94		
남편의 소득비	40.47	23.45	16.13	20.53	37.05	24.61		
소득에 대한 만족여부	6.80	10.18	5.82	9.17	-2.74	10.94		
엔겔계수	-276.51***	32.59	-311.87***	28.77	-526.59***	34.46		
주관적 경제인식	7.17	5.20	-5.93	4.57	-0.73	5.51		
상 수	-262.32		-244.40		-108.07			
Log Likelihood	-5688.60		-7467.32		-8668.21			

\* <.05    \*\* <.01    \*\*\* <.001

고등학생인 경우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았는데, 이는 중학생인 경우 고등학교 진학과 과외교습을 위해,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대학 진학을 위해 학교수업외에 과외지도를 시키는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Lino, 1994 ; 문숙재·김성희,

1995). 그러나 중·고등학생인 경우에 비해 초등학생인 경우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은 것은 학교과목을 위한 과외비 지출때문이기 보다는 예·체능교습을 위한 특별활동비의 지출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거주지역이 도시인 경우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

은 것은 도시에 학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과외교습을 받을수 있는 인적시장이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에는 자녀의 교육여건을 위해 이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며, 농촌에서는 아직도 자녀를 부족한 일손을 메울 수 있는 하나의 노동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Aghajanian(1988)의 결과와 일치하며, Lino(1991, 1994)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이 많을수록 사교육비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투자 기회와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 자녀에게 부모가 투자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은 투자기회가 많을수록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량이 증가한다는 박일규(1993)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김성희(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총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연령, 주부의 교육수준, 자녀수, 생활주기, 거주지역,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실물자산, 엔겔계수였다. 주부연령이 많을수록,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첫자녀가 취학전이거나 초등학교인 경우에 비해 중·고등학교인 경우, 중·고등학교인 경우에 비해 대학생인 경우, 거주지역이 도시일때,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실물자산이 많을수록, 엔겔계수가 낮을수록 자녀를 위한 총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자녀가 취학전이거나 초등학교인 경우에 비해 중·고등학교인 경우 총교육비의 지출이 많은 것은 의무교육의 부재로 공교육비의 지출이 높으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과외교습으로 인해 사교육비 중 과외비의 지출이 현저히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김행(1994), 조성숙(199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대학생의 총교육비가 중·고등학생보다 많은 것은 대학생의 공교육비가 중고등학생의 2배 내지 4배 가량 높기 때문일 것이다. 엔겔계수가 낮을수록 총교육비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생활수준이 높아 생활에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위한 투자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그리고 실물자산이 많다는 것은 자녀의 교육투자를 위한 경제적 자원의 증가, 즉 공급요인의 증가로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 투자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출을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분하여 비교해 본 결과 첫자녀의 연령이 취학전이거나 초등학교인 경우 공교육비에 비해 사교육비의 지출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지출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으며, 대학생인 경우 공교육비의 지출이 사교육비 지출에 비해 2배 정도 높았다. 그러므로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의 한 방법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내용은 자녀의 교육단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취학전이거나 초등학교의 경우는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은데 이를 위해서 방과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이나 학교건물을 활용하여 자녀의 특기활동을 위한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한다면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중·고등학교 이상의 경우에는 공교육비의 지출이 많으므로 의무교육제도를 확대하고 자치단체 단위로 국립대학 등을 증설한다면 공교육비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정부차원에서 자녀의 교육단계에 적합한 교육정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 중 교육투자량의 객관적 지표라 할 수 있는 교육비 지출은 첫자녀가 중·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인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거주지역이 도시일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주기, 자녀수, 거주지역 등은 자녀의 교육투자를 유발하는 요인이므로 자녀의 교육비 지출은 증가하게 된다. 반면 투자기회와 관련시

켜 생각할 수 있는 재정관련변수 중에서는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실물자산이 많을수록, 앵겔계수가 낮을수록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실물자산, 그리고 앵겔계수 등은 가정의 투자능력을 나타내주는 변수이므로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량에는 부모의 특성보다는 자녀변수와 투자능력을 나타내주는 재정변수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자녀계획과 함께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정부나 기업단위로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사용하거나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학자금 융자 혜택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가계의 재정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출에 대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초기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가계를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교육비 영역에 대한 개념적 조작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녀의 교육투자량을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금전비용만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가계의 교육투자에 대한 부담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생활비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과 같은 객관화된 척도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고조되고 있으나 가정학 분야에서 자녀 교육을 자녀의 미래의 생산성 증가 및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인적자본투자의 한 형태로 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투자량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시장의 여건, 자녀의 성, 터울, 자녀능력, 자녀건강, 소득원 등 다양한 요인들을 연구에 포함한 폭넓은 차원의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이 해결된다면 가정에서 자녀

의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투자행동을 좀 더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 사회의 인적자본의 질 예측과 함께 사회의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의 인적자본 투자행동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가정과 사회에 적합한 미래인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성희(1996), 인적자본으로 본 자녀에 대한 투자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2) 도시가계연보, 1994. 통계청.
- 3) 문숙재, 김성희(1995), 자녀교육 및 양육비용의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301-314.
- 4) W.케이드 브라이언트 저, 문숙재, 김순미, 소연경, 홍성희 공역. 가정경제. 서울 : 한울, 1993.
- 5) 박일규(1995). 노동경제학, 서울 : 박영사.
- 6) 박창영(1991). 인적자본이 한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7) 사회발전연구소(1984). 인간자본론, 사회발전연구소.
- 8) 조성숙(1994). 가족의 자녀교육.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여성한국사회연구회 제4회 심포지움, 43-95.
- 9) Aghajanian, Akbar(1988). The Value of Children in Rural and Urban Iran: A Pilot Stud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9(1), 85-97.
- 10) Becker, Gary S.(1962). Investment in Human Capital : A Treoretical Anal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Oct. 9-49.
- 11)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 12) —————(1975). Human Capita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3) Bryant, W. Keith(1992). Human Capital, Time Use, and Other Family Behavior.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4), 395-405.

- 14) Erikson, Goran(1991). Human Capital Investments and Labor Mobility. *Journal of Labor Economics*, 9(3). 236-254.
- 15) Espenshade, Thomas J.(1984). Investing in Children. The Urban Institute Press-Washington, D.C.
- 16) Lino, Mark(1990). Factors Affecting Expenditures of Single-Parent Household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8(3), 191-201.
- 17) ———(1990). Expenditures on a Child by Husband-Wife Families. *Family Economics Review*, 3(3), 2-18.
- 18) ———(1994). Expenditures on a Child by Families 1993, *Family Economics Review*, 7(3), 2-19.
- 19) Schultz, Theodore W.(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1(1), 226-242.